

95.6.6

전국통신

여성의 복수조합제 참여 장치 · 촉구

여성농민회, 31일 공청회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 강유순·49)은 5월31일 농업기술진흥관에서 60여명의 군·도단위 여성농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복수조합원제의 올바른 시행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23일 실시예정인 복수조합원제에 여성조합원의 실제적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촉구했다.

전여농 고은실 대외협력위원장은 기초발제를 통해 "복수조합원제 시행은 조합원을 조합장 선거의 표로 인식하거나 운영의 당리당락을 먼저 계산하는 등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진행될 소지가 있음"을 지적한 후 "가구당 기본출자액을 산정해

복수조합원에게 적용, 신규가구 조합원가입시 평균출자액 분담 등의 출자금에 대한 부담감도 덜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복수조합원제 실시와 관련한 설문조사에서 후계농민과 여성농민의 조합참여 의지가 각각 63.15, 53.6%로 높게 나왔음을 지적하며 "대의원 및 의사결정기구에 여성할당제(30%) 도입 실시 등 여성조합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수조합원제에 대한 정부입장을 발표한 이명진(농림수란부 농업금융과) 사무관은 "정관 개정시 여성참여 비율을 제도

화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나 운영상 참여폭을 넓혀나가는 방향으로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앞서 전여농은 '농협 복수조합원제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여성농민대책위'(위원장 윤금순·37) 발

족식을 갖고 ▲여성조합원의 30%이상 확보 보장 ▲복수조합원제 시행과 정착을 위한 특별위원회와 교육 설치 ▲대의원과 이사회의 정수를 확대해 의사결정과정의 참여 보장 ▲여성농민의 영농기술교육 확대 등을 요구했다.



전국여성농민회 총연합(회장 강유순·49)은 5월31일 농업기술진흥관에서 '복수조합원제의 올바른 시행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